

Korean Woman's Fashion reflected on the Magazine 'Shin-YeoSung' in 1920s-1930s

HASEGAWA Risa* · Cho, Woo-Hyun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female magazine, "Shin-YeoSung" was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had its first publication in 1923 and ceased to publish in 1934. The study analyzed the 25 and 24 volumes of the magazines each before and after the suspension of the publication. The Korean tradition dress (Hanbok) for woman in transition since 1920s-1930s were disclosed referred to the related Japanese fashion. "Shin-YeoSung" showed two standpoints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fashion transition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First, there was the changed on the texture and the form of Hanbok with the cover design. In general, people with white Hanbok, hence colored and patterned stuffs began to be used as time passed. And the import numbers from Japan increased obviously and it had huge influence of Japan to the weaving industry of Korea. In addition, patterns were widely used in the Japanese tradition fashion and the vogues were widely spread to Choson. Moreover, the changed of Hanbok in form could be seen by analyzing the cover design as mentioned in the early research. Meanwhile its form peculiarities in the cover design were similar to the records of the female school uniform with advanced the fashion.

The following article from "Shin-YeoSung", analyzed the fashion in ter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designation of Hanbok showed a strong nationalism. However, there was a presumption showed that the Hanbok and the foreign fashion were originally from the Japanese Chinese characters, with minor Japanese's influence compared to the language from westerner. This was because of the sudden increased in the foreign product and foreign language to the people in Choson. First and foremost, It is un-

common to name Korean own designation to the items imported in other field. So it is deserved lots of attentions.

The above analysis showed the clothing transition were influenced by the Japan in the Japanese imperialism as predicted. Nevertheless, in the point of view of Choson, there were options in expropriation in fashion. There were situation that some of the Japanese vogue were not being need choose. There are evidences showed the choice of vogue of tradition and life in harmony were the advantages. In the same time, some peculiarities had been found. It's own designation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 of Hanbok showed achievement. In same period, Japan gave up in the traditional dress reformation and started import of western suits directly despite of Korean's insisted in traditional dress reformation. It could be considered Choson's peculiarity of the transition in fashion.

잡지 “신여성”에 나타난 1920-30년대 한국 여성복식

하세가와리사* · 조우현

성균관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일제기에 출판된 여성잡지 “신여성”은 1923년에 창간되며 1934년에 폐간됐다. 이번에는 도중 휴간 전 25호와 재간 후 23호를 분석하며 1920-30년대 여성 한복의 변천을 일본 복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고찰을 시도하였다. “신여성”에 나타난 일제기 복식 변화를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 주목하였다. 우선 표지 그림에 볼 수 있는 한복에 사용된 옷감의 변화와 형태상의 변화이다. 백의 착용이 일반적이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유색 옷감과 무의가 들어간 옷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대 방직업의 일본 수입 의존은 명백히 높으며 한복 옷감에 미친 일본의 영향은 컸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당시 일본에서도 전통복식에 무늬가 많이 쓰이는 유행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유행이 조선에 파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지 그림의 분석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한복의 형태상의 변화에 관해서는 선행연구 안에서 지적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표지에서 확인된 형태상 특징은 당시 의생활의 최첨단이었던 여학생들의 통학복에 관한 기록과도 공통한다.

다음으로 “신여성” 기사에서 복식관련 용어를 분석하였다. 일제에 의한 통치가 진행되며 한복을 뜻하는 호칭에서는 조선 종래의 문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복 및 외국의 의복에 관해서는 일본식 한자어가 유래이라 추측되는 호칭 등 일본 영향도 나타나지만 많지가 않으며, 서양에서 직접 수용된 외래어가 비교적 많이 사용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외국 제품과 외래어가 급격히 늘어나 조선 민중에게 가까운 존재로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장식품에 조선 독자적으로 호칭을 만들어 붙이는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흔하지 않아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일제기 의생활의 변천에는 당초 예측한 대로 일본 영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복식 수용 과정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취사선택하여 수용한 태도를 볼 수 있는 점은 특기해야 한다. 일본의 유행 중에서도 선택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수용할 때 자신의 전통 및 생활에 맞춰서 그 장점을 취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의복 변천의 독자성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독자적인 호칭의 등장과 더불어 한복 개량의 성공이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전통 복식에 변화가 나타난 일본에서 일본 전통복을 기초로 한 개량을 포기하고 일찍 양장을 도입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조선의 독특한 변화 형태라 할 수 있다.